

전자출원제도 도입 후 4년 6개월만에 전자출원 100만 건 돌파했다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1999년 1월 2일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제도를 시행한 지 4년 6개월만인 지난 7월 1일에 전자출원이 10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처럼 4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자출원이 100만 건을 넘어선 것은 우리 나라의 IT 인프라, 인터넷 활용능력 그리고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의 우수성이 서로 어우러져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 정보화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세계 지식재산권 정보화 분야에서 선두주자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보여진다.

100만번째 전자출원의 영광은 (주)두모션(대표이사 허운)이 차지하였다. (주)두모션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자산'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직원의 80% 이상을 연구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6건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자출원 제1호는 1999년 1월 2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이며, 이후 14개월만인 2000년 2월에 20만호가 달성되었고 40만호와 60만호는 각각 10.5개월, 80만호와 100만호는 각각 9.5개월로 매 20만호별로 달성기간이 점차 단축되어 왔다(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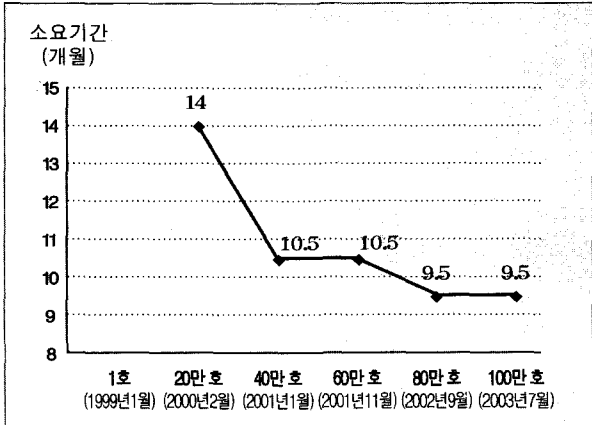
이렇게 전자출원율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의 높은 인터넷 사용율, '98년 특허청 대전시대를 대비한 특허 시스템의 개발 및 지속적인 전자출원 시스템의 개선, 사용자 교육 및 전자출원 진흥을 위한 특허청의 각종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달 10일, 하동만 특허청장은 전자출원 100만호 돌파를 기념하여 100만호 전자출원자인 (주)두모션(대표이사 허운)과, 이 출원을 대리한 이상현 변리사(한누리 특

허법률사무소), 특허넷 시스템을 개발한 LG CNS 정병철 사장과 HW 공급자인 한국 HP 최준근 사장을 대전 특허청으로 초청하여, 100만번째 전자출원 기념패와 기념품 전달 및 특허넷 시스템 운영 유공자에 대한 특허청장상을 수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하청장은 대한민국의 특허넷 시스템이 세계 선진 특허청간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세계 최초의 100만번째 전자출원 달성은 특허넷 시스템의 완성이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우수한 특허출원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이어져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루는 근간이 되고 있다'며 2005년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특허넷II 시스템 역시 고객의 편의를 기본으로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이 되도록 모든 이들이 힘써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전자출원 20만호별 소요 기간



한국의과학연구소, 한국인삼공사와 특허권 법정 다툼

이달 건강 기능 식품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간 특허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방 바이오 벤처인 한국의과학연구소와 한국인삼공사간의 법정 싸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의과학연구소는 한국인삼공사가 시판 중인 '레드맥스'를 상대로 지난 5월 대전법원에 '특허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의과학연구소는 한국인삼공사의 '레드맥스'가 자사 제품 '천보204'의 구성 물질을 도용한 것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연구를 완성하고 상품화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유치를 위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제휴를 추진하면서 경영 정보와 특허 자료들을 KT&G에 제출, 정보를 공유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연구소 측 주장이다.

상호간 투자유치 및 공동연구개발 계획이 백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KT&G의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에서 연구기술과 특허정보를 이용해 한국의과학연구소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레드맥스'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는 것.



▲ 한국의과학연구소의 '천보 204'. 한국의과학연구소는 한국인삼공사의 '레드맥스'가 이 제품의 구성 물질을 도용해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품과 유사한 제품을 '레드맥스'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는 것.

한국의과학연구소 황성연 사장은 '벤처기업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특허를 기업이 무단 침해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꿈을 짓밟는 행태'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삼공사 측은 '레드맥스는 200여명의 연구진의 연구 끝에 개발된 제품이고, 의과학연구소가 주장하는 특허는 출원 당시 이미 신기술이 아닌 만큼 특허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특허권 무효 심판 소송'을 청구, 반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의 출원서로 전세계 특허출원 효과

해외에서의 특허획득 절차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특허청은 출원인이 해외에서 보다 쉽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특허법 시행규칙 등)을 금년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우리 나라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획득이 가능한 지를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국제출원절차에서는 출원인이 특허 받기를 희망하는 국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야만 하였고, 또한 특허획득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제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선행기술 조사결과 외에도 별도의 국제예비심사청구 절차를 밟아 특허성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국제출원서 제출만으로 모든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회원국가가 자동으로 지정될 뿐만 아니라, 국제조사단계에서 국제예비심사 수준의 특허획득 가능성에 대한 판단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은 조기에 출원 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무분별한 예비심사 청구를 자제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특허협력조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조약의 모든 회원국도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금년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특허출원 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기 위한 금번 관련 법령의 개정은 올해 하반기 중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유유·크리스탈지노맥스 공동 새 당뇨병 치료제 특허 출원

(주)유유(www.yuyu.co.kr)는 바이오 벤처 기업인 크리스탈지노믹스와 공동으로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 특허를 출원했다. 이 물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5건의 물질 특허 출원에 이어 유유에서 6번째 특허 출원한 물질로 당뇨병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물질은 5건의 기존 물질 특허와 마찬가지로 GSK 3β라는 효소를 억제하며, 기존에 소개된 세계적인 제약회사 로슈, 카이론 등이 개발한 화합물보다 좋은 약효를 시험관 수준에서 보이고 있다고 한다. 생체 대사, 흡수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약동력학 실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곧 추가적인 실험과 동물 약효 평가 등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실험 결과가 좋으면 올해 안에 개발 후보 물질을 결정하고 임상 전 시험을 시작한다는 것이 유유측의 설명이다.

- 2 지난달 1일 전자출원 100만건 돌파
- 3 우수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위한 특허투자조합 탄생
- 4 특허청 일본과 특허심사 협력체제 기반 마련
- 6 서울대 수시모집 지원 자격 축소
- 7 역사속의 발명품 김벌리의 클리넥스
- 9 인물 FOCUS (주)한국라이스텍 윤명희 대표
- 11 여행 스틸 만점! 여름 레포트 명소 가이드
- 14 사단법인 한국발명개발원

[기사의뢰]
(사)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